

노르웨이, 휘발유 자동차 판매금지

재무장관, 2015년부터 시행 검토 ... 환경보호단체 적극 지지 나서

노르웨이가 2015년부터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틴 할보르센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4월25일 로이터 회견에서 “2015년부터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와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노르웨이에서 전기, 바이오연료 혹은 수소연료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만 판매토록 한다는 구상으로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는 허용된다.

그러나 연정을 주도하는 노동당 출신의 젠스 스톨텐베르크 총리는 반대 입장이어서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할보르센은 연정 참여 3당의 하나인 사회주의 좌파당 소속이다.

반면, 환경보호단체들은 할보르센의 구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할보르센 재무장관은 “휘발유 자동차 판매금지 규제가 세계 6위 석유 생산국인 노르웨이 경제에 타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요 메이커들도 휘발유 자동차 의존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28>